

2022 OPEN! 15.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은혜

[창세기 13:8-9] 8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나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1. 순종

순종이 중요한 영적원리가 있다. 이유는 분명하다. 하나님 때문이다. 순종은 단순히 명령이 있으면 복종하는 단계의 깊이가 아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명확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이다. 그래서 순종은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통치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순종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첫 사람으로 창조하신 아담에게 순종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정확히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순종은 어려운 일이 된다. 그래서 순종은 혼적인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

(1) 죄의 본성 - 순종이 어렵고 부담되는 이유는 죄의 본성 때문이다.

순종이 안 되는 이유를 그냥 넘어가지 마라. 반드시 그 문제의 원인을 영적으로 진단해야 한다.

[이사야 53: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각자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것이 죄의 본성이다. 'iniquity' - 부정, 불법, 사악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정도의 심각성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히 한다. 가장 적절한 번역이 '반역(rebellion)'이라는 단어이다. 반역은 다른 말로 '악(evil)'이다. 인간의 모든 반역과 악마적인 모든 것을 죄 없는 예수가 짊어지게 하셨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시키셨도다) 그렇게 됨으로 우리가 좋은 것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이사야 53장의 핵심이다.

(2) 착한 성품이 순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순종이다.

순종을 생각할 때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저 사람은 참 착해. 순해. 온유해' 라고 평가되는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라 생각한다. 물론 표면적으로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순종은 인간의 착한 행실과 성품이 아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착하기만 한 사람을 영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자기 의'가 오히려 더 강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쉽지 않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자기'를 비워내고 처리해야 한다. 내 의지, 내 힘과 성품으로 따를 수 없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비워내신 분이시다.

[빌립보서 2:6-8]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순종을 보라. 7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자기를 비워 내시는 일과, 자기를 낮추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다.

2.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공통된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순종의 삶이다. 순종이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지 생각해 보자.

(1)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국 성도의 삶의 최종 목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 자기 자신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점검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 '주님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해야 한다.

(2) 하나님의 사람은 결정권을 주님께 드린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려운 일은 '순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데 불순종하지 않는다. 어떻게 순종이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것은 평소 주님과 깊은 관계로부터 온다. 주님과 깊은 관계란, 삶의 모든 주도권과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말한다. '로드십'은 하루 아침에 형성되지 않는다. 주님과 오랜 동행을 통한 친밀감으로부터 나온다. 이 사람은 주님을 이해하지 않는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다. 다윗의 헤브론 시즌이다.

[사무엘하 2:1]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무엘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기름을 부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두 단계에 걸쳐 왕이 된다. 1차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다 (기름부음을 받은지 15년후). 2차는 사무엘하 5장에 기록된 대로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오늘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기 전의 상황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사울이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다윗은 사무엘하 2:1절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어 아뢰되~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라고 두 번 이나 하나님께 자신의 주도권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울과 달리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다. '순종'이다. 순종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철저히 인생의 주도권과 결정권을 드리는 로드십을 말한다.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사울의 불순종의 핵심은 '자기'이다. 하나님의 뜻과 음성이 있어도 결국 자기 뜻을 따른다. 전쟁 앞에 있는 결정적 순간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자기 뜻을 따르는 것이다.

* 고아 - 불순종

자기를 포기 못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없는 '고아'이기 때문이다. 고아의 특징은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담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을 아버지 없는 고아로 만드는 것이다. 그 후부터 인간의 결정은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나뉘임으로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뉘임을 만드는 열심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어리석다. 해결이 없다. 고생만 할 뿐이다.

[요한복음 8:47] 너희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듣지 않는 이유가 명확하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말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고아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3. 결정적 순간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생의 결정적 순간 때문이다. 결정적 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시간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시간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계산이 아니다. '순종'이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내 생각과 경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빚겨가는 사람들이 있다. 잘못된 결정으로 성장과 발전이 없이 계속 제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창세기 13:8-10] 8 아브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9 네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파로 떨어져 살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10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창세기 13:14-15] 14 롯이 아브람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15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아브라함의 번성으로 함께 있었던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 목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결정은 롯에게 주도권을 주는 것이었다. 롯에게 주도권을 준다는 것은 이미 종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이기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다. 자신의 이익과 미래의 운명이 자칫하면 위협이 될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하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익이 아니라 롯과의 관계를 택했다. 그리고 롯에게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말한다. 아는 것처럼 롯은 보기에 좋은 소돔을 택했다. (10절-물이 넉넉하고 이집트 땅과도 같은 땅). 결국 롯은 지금 보기에는 좋지만 미래에 멸망할 소돔을 택했다. 롯의 결정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미래는 불투명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을 보여주신다. (14절)

* 결정권과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하나님께 인생의 결정권을 드린다는 것은 불투명한 미래 뒤에 있는 약속을 보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결정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아브라함의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이다. 자신의 눈 앞에 있는 이익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롯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께도 동일하다. 아브라함의 이 마음은 자신을 비워낼 때 가능하다. 자신을 비워내야 한다.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 아브라함의 결정은 본인이 결정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나온, 오랜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으로부터 오는 확신이다.

아주 중요한 결정적 순간이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내 인생 속에도 있다. 오늘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물어야 한다. 그 질문의 답이 내게 버거울 수 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순종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실 것이다. **'모든 주도권과 결정권을 나에게 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나의 아들이 딸아, 나를 신뢰해 준 너에게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할 것이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즐거운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가라. 그리고 그 후에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맛보아라.